

에너지협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16차 WEC 동경총회 참여방안논의

에너지협의회 제12차 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7일(금) 여의도 럭키금성트윈타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협의회 김정진 국제협력부장의 WEC 동경총회 조직위원회 방문결과를 보고받고, WEC 제16차총회에 대한 부문별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여러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논문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전, 한기, 에경연, 에기연, 유공등 10여개 회원을 선정하여 논문제출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고 적극 권장 또는 권유한다. ② 기조연설자로 한국국내위에서 책임자를 선정하여 강연주제, 주요내용등을 사전에 총회조직위에 통보해줌으로써 반드시 실현되도록 한다. ③ 토론회의의 패널리스트로 한국측에서 가능한 다수가 참여하여 세계적 전문가들과 의견교환 및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④ 에너지전시회 참가문제는 동경총회조직위에서 배포할 전시회 참가 안내서를 접수한후 회원사만 국한하지 말고 그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참여를 홍보하기로 한다. ⑤ 한국의 에너지관련 산업시설물을 WEC 동경총회의 산업시찰코스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한전, 현대, 포철, 한중등 국내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문허락을 얻은후 관광지를 포함하는 산업시찰코스(안)을 작성하여 동경총회조직위에 송부하기로 한다 등이 다.

특히 이날 기술자문위는 WEC 총회가 한편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관련 산업의

통산증진 탐색을 위한 성격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우수업체들이 WEC 총회에 눈을 돌리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에너지 전시회」의 적극 참가를 유도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浦鐵 이인범박사 위원에 선정

WEC 하이테크이용 에너지 効率委員會

WEC는 최근 1993~95년간 추진할 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Project 3. Rational Use of Energy 분야의 한 실무소위원회인 Work Group A. 「하이테크를 이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산업 및 수송부문을 중심」(Efficient Use of Energy Utilising High Technology (i) in industries and (ii) in transportation)에 한국측 위원으로 浦鐵 산업과학기술연구소 환경제어연구그룹장인 이인범 박사가 선정되었다.

李박사는 포항공대 화공과 교수직등을 겸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WEC 일본국내위원회가 제안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위원장은 동경대 명예교수인 Dr. T. Ishii이며, 부위원장 Dr. M. Levine(미국) 및 Dr. M. Hirose(일본), 위원으로 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대만, 캐나다, UNECE, IGU등 WEC 주요 회원국 및 국제기구대표 약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주요 연구조사업무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산업의 효율향상을 위한 하이테크이용의 실용화 연구. 특히 전자공

학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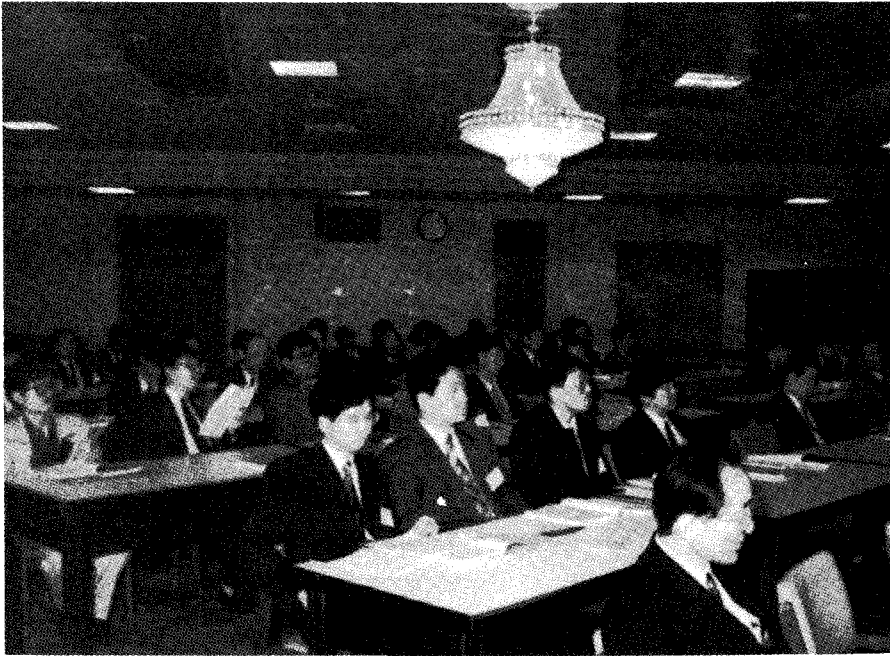
② 하이테크기술개발 자체가 연구목적 아니라 이를 응용하여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Systematic Approach)에 중점

③ 다양한 에너지집약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등이다.

이 위원회는 구체적인 철강산업, 대형발당의 에너지 관리, 교통통제시스템 분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1단계로 전통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조사하고, 2단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회의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보고서는 1995년 4월말까지 완성하여 WEC 동경총회시(1995년 10월) 발표될 계획이다.

회의	일 자	장 소
1차회의	1993.6.22/23	동 경
2차회의	1993년말	미 국
3차회의	1994년중순	노르웨이
최종회의	1994년말	동 경



大德과학단지내에 있는 한국과학재단 회의실에서 춘계에너지학술 발표회가 열렸다.

대체에너지 문제에 관심 고조 춘계 에너지 학술발표회 개최

에너지공학회 태양에너지학회 에너지협의회 공동으로

에너지협의회는 지난 5월 14~15일 이틀간 한국과학재단(대전과학단지내)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학회(회장 정근모 박사) 및 한국태양에너지학회(회장 오정무 박사)와 공동으로 「'93 춘계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3개기관의 회원 약 140명이 참석하였다.

첫날인 5월 14일에는 협의회 김영철 사무국장의 「WEC 제16차동경총회에의 한국측의 참여방안」에 대해 설명회가 있었다.

1995년에 일본 「도요코」에서 3년만에 열리는 제16차 WEC총회는 이웃나라에서 모처럼 열리는 대규모국제회의니만큼 우리나라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조직적으로 창의적 참여방안을 찾고 에너지업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단을 파견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5월 15일 오전에는 태양에너지학회 최영희 학술이사의 사회로 정근모 박사의 개회사, 박이동 교수(태양에너지학회 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경희대 정현재 교수가 「인류문명의 마지막 보루, 태양

에너지, 한국가스기공(주)의 선우현범 사장이 「한국 천연가스사업의 발전방향」, 에너지기술(연)의 전홍석 박사가 「태양열, 풍력발전의 최근동향」에 대해서 각각 초청강연을 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참석자들이 제1, 제2회의장으로 각각 나누어 제출된 20편의 학술논문을 10편씩 발표하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김부호박사(에技研)의 「사회환경측면에서의 대체에너지정책평가」등 주제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火力발전소 가동률 향상문제 토론

미국서 火電성능위원회 열려

다음회의 9월20일 「발리」서

WEC의 「화력발전소성능위원회」(Committee on the Performance of Thermal Generating Plant, 위원장: 미국 Mr. P. J. Adam) 1993년도 1차회의가 지난 3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 위원인 이상영 본부장(한전 삼천포화력본부) 대신에 한전 뉴욕사무소 조병옥 과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과거 3년간 (1989~92)

화력발전소 가동률(Availability) 연구에 비중을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 3년간 (1993~95)은 이를 기초로하여 화력발전소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선정된 4개의 실무소위원회(Working Group) 구성을 보면 ①

화력발전소 가동률통계 보고서 개정(위원장: 프랑스 Mr.D.Glorian), ② 화력발전소 가동률·성능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강화(위원장: 이태리 Mr. L.Salvaleri), ③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발전소에 대한 성능데이터 수집(위원장: 덴마크 Mr.K. Berge), ④ 기저부하용 가스터빈 및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률·성능 데이터 교환(위원장: 미국 Mr.B.Kaupang) 등이다.

가스터빈 및 복합화력발전소 가동률 관련 실무소위원회의 Kaupang 위원장(GE사 근무)은 그동안 이 실무위원회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현재 새로운 가스터빈 복합발전소를 운영중인 한국, 일본, 대만 및 영국에서 실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미국내 190여개 전력회사로부터 미국 총설비용량의 92% 이상에 해당하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신뢰도 관련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북미전력신뢰도협회」(NERC)의 가동률 데이터 소개가 있었으며, 회의장 인근의 석탄발전소(Stanton Energy Center 1호기) 및 복합화력발전소(Hardee Power Station)를 회의참석자 전원이 견학하였다.

이 위원회의 금년도 2차회의는 9월 20일~21일 인도네시아 발리(금년도 집행이사회 개최지), 1994년도 1차회의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 경제성평가 사회적비용 경감고려를” 환경오염막아 化石에너지 보다 저렴

흔히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환경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적게 먹힌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덕연구단지 안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 열린 한국에너지 공학회의 봄철 학술발표회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부호 박사는 ‘사회환경 측면에서의 대체에너지 정책 평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화석연료는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안정돼 있으나, 90년의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석유 46년, 석탄 205년, 천연가스 67년 등의 기간이 지나면 자원이 고갈되며 탄산가스 방출량이 많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자원과 환경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가격 원칙에 내맡겨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평

가방법을 개발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사회적비용이론을 제창한 독일의 호메이어 박사는 환경, 건강, 화석에너지 자원의 고갈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을 1kWh당 원자력발전 50~350원, 풍력 25~130원, 태양광 30~160원 등으로 계산했다.

호메이어 박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비싸다고 알려진 재생가능 에너지를 도입할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실시여부는 순전히 정책과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제까지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새 에너지원은 기존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회비용을 포함해 대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신문)

WEC 연구위원회에 우리나라도 에너지經研서 대표파견

대만電力이 주관 다음회의 인도네시아서

WEC 연구위원회(Studies Committee, 위원장: 프랑스 Mr.J.Bergougnoux) 금년도 1차회의가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대만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WEC의 3개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이희성 박사(에經研원장)가 한국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김진우 국제협력과장(에經研)이 대신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1989~92년간 수행해온 산하 기술연구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의 결과검토와 1993~95년간 수행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Commission on Energy for Tomorrow's World」의 최종보고서 발간준비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발표시기를 금년도 집행이사회(1993. 9. 22~24, 인도네시아 발리)로 결정하였다.

향후 3년간 이위원회가 추진할 5개 신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① Energy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위원장: 요르단 Dr.H.Al Khatib),

② East/West Programme(위원장: UNECE Dr.K.Brendow),

③ Rational Use of Energy(위원장: 노르웨이 Mr.M.Bekkehein),

④ Environment(위원장: 프랑스

Mr.J.Bouvet), ⑤ Energy Perspectives(위원장: 미정임)

이 5개의 신규 프로젝트는 각각 산하에 실무소위원회(Work Group)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연구조사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중 Project 3.의 Work Group A. 「하이테크를 이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산업 및 수송부문을 중심」 소위원회(위원장: 일본 Prof.T.Ishii)는 WEC 일본국내위원회가 제안하여 구성된 것이며, 한국측 위원으로 포항제철의 전문가를 지명해줄 것을 회의에 참석했던 김진우과장에게 특별히 요청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장소는 대만전력 본사였는데 위원회 회의가 끝난후 참석자들에게 대만의 에너지현황에 대한 슬라이드 브리핑과 대만의 전력산업에 대한 멀티비전 상영이 있었고, Ming Tan 양수발전소 방문, Sun Moon호수(日月潭) 관광 등이 있었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월 20일 WEC 「발리」집행이사회 개최되기 직전에 있을 예정이다.

16차 WEC총회 참가문제 협의 에너지協서 일본 組織委 방문 규모큰 한국대표단 파견 바라

에너지협의회 김정진 국제협력부장은 지난 4월 20일~21일 WEC일본국내위원회(일본동력협회) 및 WEC 제16차총회조직위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협의를 통해 에너지協은 WEC 동경총회(1995.10.8~13)에 한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하여 일본측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한국에너지協은 논문제출편수 및 내용, 국내 저명인사의 기조연설 및 패널리스트 참여, 국내 기업체의 전시회 참여,

산업시찰코스에 한국의 산업시설 및 관광지 포함 요청등에 대해 일본측 관계자들과 협의하였는데 일본의 組織委 당국자들은 우리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나타냈다.

또한 그들은 95년의 16차 WEC 총회에는 어느 총회때보다 많은 인원의 대표단을 파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의 협의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참가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측과 계속하여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